

여성인행복한도시대전 2018 Vol. 27



여성인행복한도시대전

행복한도시대전

도전시

ZOOM-IN
기획대담
직장내 성희롱 예방
"나도 피해자" 고백부터 시작해야

대전

ISSUE & VIEW
대전시, '직장내 성희롱'
실태를 진단하다



사진_서정우

『여성이 행복한 도시, 대전』은 대전광역시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연 2회 함께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발행인 | 대전광역시장
 발행일 | 2018년 6월 30일
 편집위원 | 주혜진·김민영·김형석·최성은·허용주 편집 | 이유라
 발행처 |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디자인·제작 | 디자인스튜디오 203 대전

CONTENTS

ZOOM-IN

- 0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나도 피해자” 고백부터 시작해야



ISSUE & VIEW

- 06 대전시,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진단하다

GENDER! TALK & PLAY

- 09 '반남성주의'?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 10 미투운동이 주는 작은 울림
- 11 할머니의 당부



이야기 하나

- 12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 일터 '다맛! 누룽지' 누룽지 만들면서 자립의 꿈 키워요
- 14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인지역' 대전의 청년공간은 어디?

이야기 들

- 16 성평등 도시 대전 '두런두런' 이런 일이
- 17 기초자치단체 활동 엿보기
- 20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News

이야기 셋

- 22 마루마을어린이도서관 리빙랩, 법동을 부탁해!
- 24 여성계 활동 이모 저모

함께하는 생각

- 26 4차 산업혁명엔 여성에게 축복일까?
- 29 건강검진할 때 안과검진도 챙기세요
- 30 근로시간 단축, 워라벨(Work-Life Balance)과 일자리나누기로 이어질 수 있을까?

여우야, 놀자

- 32 '라임청'으로 무더위를 쿨하게 날려볼까?
- 34 대전 마을라디오 1호, 대덕밸리라디오 최순희 총괄PD "마을라디오로 삶의 공간을 가깝고 풍부하게 만들어요"
- 36 도서관 어디까지 가봤니? 유림공원 숲 속 '문학마을도서관' 마을을 사랑하는 작지만 큰 '작은도서관'



기획대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나도 피해자” 고백부터 시작해야

대전시가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했으며,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5월 29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는 사업주의 예방 및 조치의무가 강화됐다. 이와 같이 성희롱 예방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시점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지난 5월 30일 성희롱 실태 및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대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담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각계 미투(MeToo)운동으로 성범죄, 젠더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체감하시나요?

이주현 카이스트 인권윤리센터 부센터장
대학에서 성희롱 고충 상담을 맡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매우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많이 늘었다기보다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많은 지침이 내려오고 있죠. 이전에는 대학원생의 인권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면, 올해는 미투(MeToo)운동으로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치 철저, 미투 온라인 신고센터 이용 등에 대한 내용이 많아졌어요.

이은주 대전여민회 고용평등상담실장
저는 대전여민회에서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여성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여성노동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미투(MeToo)운동으로 고용노동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최근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증액 얘기가 나올 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체감해요. 1인 인건비도 안 나오는 예산을 배정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한 모든 모성보호와 관련된 여성노동 상담을 전담하도록 했었죠. 20년 동안 예산이 동결인 상태예요. 예산 증액은 국가가 이 이슈에 관심을 보인다는 의미이고, 중요성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야 고용평등상담 현장이 주목받는 게 아쉽죠. 한편 시민운동 내에서도 성희롱과 성폭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 지거나 듣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 같아요.

박철환 법률사무소 지원 대표변호사
이전에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뤘다면 근래에는 직장 내 성희롱, 데이트폭력 등에 대한 고충 상담이 많이 늘었어요. 또 이전에는 주로 직장 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이 상담을 하러 많이

〇〇
실태조사 기타 문항에
‘무엇이 성희롱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니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이주현
카이스트
인권윤리센터 부센터장



이은주
대전여민회
고용평등상담실장



박철환
법률사무소 지원
대표변호사



배영옥
대전광역시
성평등기획특별보좌관

왔었는데, 이제는 학생, 청년층의 상담 문의도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주변에 말할 수 없는 고민이라 생각해 물어두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고충을 전문가에게 상담받기 위해 직접 문의하거나 찾아오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해요.

배영옥 대전광역시 성평등기획특별보좌관
대전시도 미투(MeToo)운동이 이슈화되면서 움직임이 있었죠. 일단 권력형 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4급 이상 간부들 대상 교육을 진행했죠. 얼마 전에는 대전시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함께 공공기관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했죠. 실제 회식이 많이 줄었고, 서로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직원들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주 저희 센터가 이번 성희롱 실태조사의 분석을 맡았는데요. 보통 설문지의 주관식 문항에는 응답하지 않죠. 그런데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약 950여 명이 자유기입을 작성했고, 각 문항마다 있는 기타 응답란에도 많이 적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느꼈죠.

배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박 그렇죠. 직장 내 문화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장이 먼저 나서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기관장이 간부들의 회식을 불령대회 같은 것으로 대체한다면, 중간간부들도 아래 직원들과 회식할 때 자연스럽게 문화 활동으로 회식을 대체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거예요.

주 그렇다면 성희롱은 왜, 어떻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배 공공기관의 관행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죠. 일례로 식사를 할 때 최고 상급자 주변에 나이가 어린 직원을 앉히려려고 하는 행위를 들 수 있어요. 소위 윗분에게 맞추려고 하는 잘못된 행동인

거죠. 권력구조의 틀 안에서 이런 관행이 만연하기 때문에 누구든 성희롱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박 여성이나, 남성이나를 떠나서 크게 권력형 조직 문화에 물들거나 둔감해지는 것에서 문제가 비롯된다고 봐요. 즉, 남성 상급자와 여성 하급자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거죠. 일명 성공한 여성분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배 여성들이 남성 상급자의 행동에 대응하거나 또는 남성 중심 조직에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박 한편으로는 남성 중심의 조직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런 이슈들 때문에 펜스를 쳐버리니까 오히려 기회를 잃어버려서 힘들다는 중간관리급 여성들도 있어요.

이 포괄적으로 봤을 때 지위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성이긴 한데, 남성 피해자도 있거든요. 내가 가지는 지위를 누리는 것처럼 잘못된 행동을 하는 여성 상급자도 일부 있으니까요. 따라서 조직 내에 민주적인 감시가 가능한 제도가 필요해요.

이 그런데 성희롱의 문제를 단순한 힘의 차이나 권력의 불균형으로만 해석해버리면 '여성도 남성을 성희롱 할 수 있지'라는 데서 끝나버리고, 이는 젠더에 대한 문제의식을 흐린다고 생각해요. 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자주 피해를 입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폭력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이 90%가 넘는다는 것은 젠더에 의한 위계가 명확하고, 아직까지 성불평한 사회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이 젠더에 따른 지위체계를 봐야한다는 점에 공감해요. 권력을 쥐고 있는 계층은 대부분 40~50대의 중년 남성이고, 가장 낮은 지위의 힘없는 계층은 젊은 비정규직 여성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하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성의 절반 이상을 고위직에 의무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하죠.

이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여성노동자에 대한 가부장적 통제나 저임금화 등 노동착취로 경제가 성장해왔고, 경제위기의 1차 피해자는 항상 여성이었죠. 그리고 남성 생계부양자 논리에 근거해서 여성은 보호해야 할 존재라는 인식으로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이 구조화 된 거예요. 즉, 채용-배치-승진-퇴사에 이르는 모든 고용상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 불평등함이 결국은 직장 내 성희롱을 만들었다고 봐요.

박 피해자가 '싫다고' 표현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분위기와 '싫다고' 안했으니까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하는 가해자의 자기 위주 해석도 문제죠. 법에는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괄해서 담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희롱의 성립요건으로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개인의 차이가 큰 거죠.

주 실태조사 기타 문항에 '무엇이 성희롱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니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박 법에서 처벌이나 징계 받은 사례를 빅데이터화 하는 게 필요해요. 이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기타 문항에 쓴 것들을 사례로 정리해서 이를 교육에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개별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만 이런 언동은 불쾌감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지침서가 될 수 있겠죠. 또 신고 및 상담 창구에 법적인 지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사람으로 '외부인'을 채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배 신고 및 상담 담당자가 보통 내부직원이기 때문에 말하기 쉽지 않아요. 실태조사 의견에서도 외부 전담기관을 마련해서 이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이 성희롱의 가장 핵심은 사법적 해결 이전에 피해자의 고충을 먼저, 어디서든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꼭 일원화된 창구를 만드는 것이 아닌 내부, 외부에 다양한 창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어쩌면 남성의 권리를 내면화 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및 고충상담 방법에 대한 교육을 거친 후 내부의 상담인력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어요.

박 같은 맥락으로 내부에서는 노동조합 안에 중간관리자로 구성된 여성인권분과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직원들 고충상담을 하면서 사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배 중간관리자들의 성인지 교육이 중요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데 공감해요.

주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 상담하면서 아쉬운 점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사람들은 유일하게 사업주 시정조항이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가정관리사, 학습지도사, 대학교 랍실에서 일하는 연구원 등은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적용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이 검찰 내부에서 법을 해석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투운동을 촉발시킨 것도 검찰의 조직문화잖아요. 검사가 사법체계를 신뢰하지 않고 언론의 힘을 빌렸다는 점이 상징적이지요. 더 나아가 전담 법원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 경찰, 검찰이 초동에 성희롱을 인지하고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희롱은 대부분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죠. 사회적 이슈가 높다고 해서 가장 처벌하면 안 되니까요. 가장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애매한 거예요.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성희롱 사례를 데이터화해서 일선에서 판단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으로 활용하면 좋겠어요.

배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성과 남성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도 매우 다르죠. 현재의 20, 30대와 50, 60대는 각자 살아온 문화와 교육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 간의 차이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수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사를 항상 묻고 행동을 취해야 해요.

주 자연스럽게 성희롱의 발생 원인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예방 관련해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 여성들은 신고하지 않아요. 어차피 가해자 처벌이 어려우니까요. 2013년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후 기소까지 이어진 것은 0.5%에 그치죠. 즉, 시정조치에서 행정종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면에는 이런 노동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저조한 비율도 원인이라 볼 수 있어요. 현재 근로감독관 1명당 1,400여 개를 감독해야 하는 수준이라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죠. 따라서 수적증가와 더불어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해요.

이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성희롱 고충상담 가이드라인에도 내부에서 남성 고충상담원 1인, 여성 고충상담원 1인을 두게 되어 있죠. 이런 고충상담원을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부의 중간관리자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선의 직원이 아닌 중간관리자가 말씀으로써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요. 예를 들어 성희롱 예방교육 예산증액에 있어서도 중간관리자의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는 것 처럼요. 따라서 중간관리자를 성희롱 고충상담원으로 육성하고 확산 시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에요.

박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써 성희롱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언동을 뽑아서 학습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하면 안

〇〇

직장 내 문화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장이 먼저 나서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〇〇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인지적인 예방법으로 1차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죠. 아울러 2차적 대응으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 감봉과 같은 내부적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관리자를 고충상담원으로 활용하기 이전에 그들이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상담자격 관련한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거죠. 물론 무작정 희생을 강요할 수 없으니 이런 활동을 한 관리자들에게는 승진과 같은 가산 조치도 따라야 합니다.

배 성희롱 예방교육이 형식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번에 실시했던 한 교육에서 실태조사에서 수집된 내용을 읽어줄 기회가 있었는데요.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따라서 이론적 지식 외에 직접적인 사례를 알려주는 등 교육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죠. 또한 인원을 줄여서 그룹별 교육 실시를 상설화 하는 것도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이 최근 발행한 「젠더뷰」 48호에 성희롱 예방 체계를 명료하게 제시한 글이 눈에 띄네요. 진단단계의 설문조사와 심층조사로 시작해서 개선단계의 가이드라인 마련, 체계 정비, 전파단계의 예방교육 실시 등 하나의 과정으로 제시했더라고요. 대전시도 진단단계인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니 이후의 예방과 사후대처까지 일련의 과정을 시스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담을 마칩니다. 

대전시,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진단하다

대전시와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대전시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여기서는 7,316명이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유무, 예방교육,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자세한 실태조사 결과는 추후 대전세종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인 『2018년 대전시 지방자치단체·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 · 오윤희_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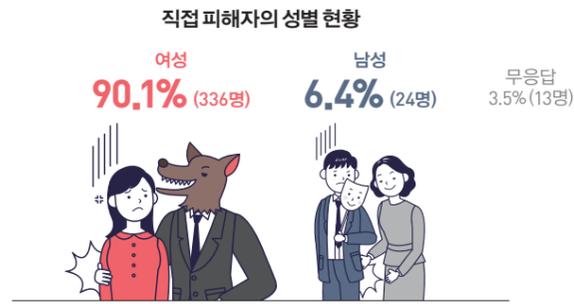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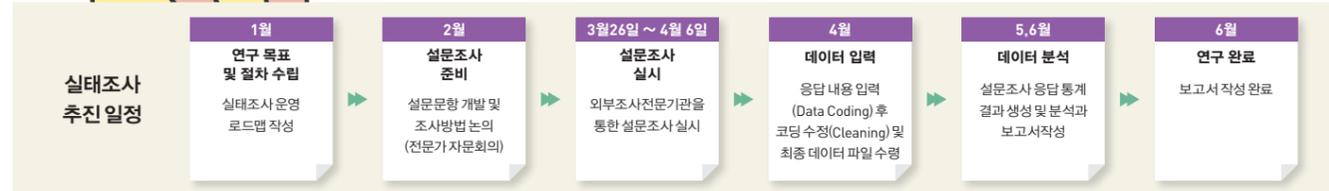
직접 피해 입은 응답자 중 90.1%가 여성

공공기관에서 종사하면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응답자(6978명)의 5.3%로 나타났다. 직접 피해를 입은 응답자(373명) 중 90.1%(336명)가 여성이었으며, 남성 6.4%(24명), 무응답 3.5%(13명)였다.

피해 유형으로는 '음란한 농담'이 25.9%로 가장 높았고, '술 따르도록 강요'가 17.5%였다. 동료의 성희롱 피해를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사실을 들은 적 있다고 한 비율은 응답자(6778명)의 9.0%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음란한 농담'이 2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술 따르도록 강요'가 18.0%로 파악됐다.



직접 피해 유무 및 피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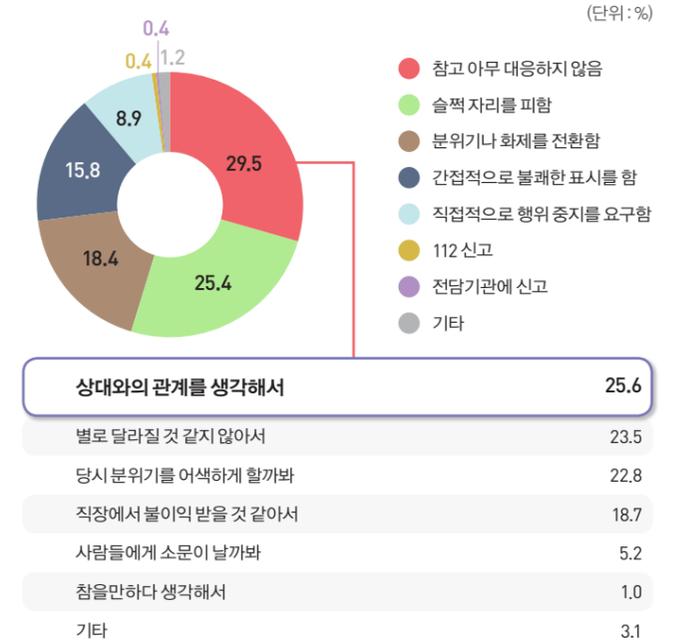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유무 및 피해 유형



"성희롱 피해에 아무 대응하지 않았다"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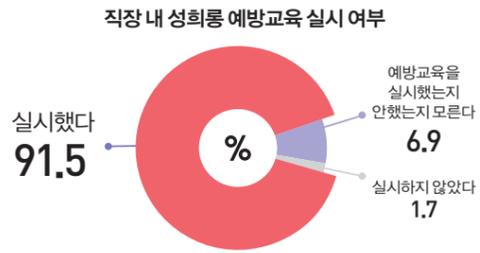
직접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발생현장에서 참고 아무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9.5%로 가장 높았는데, 그 이유로는 '상대와의 관계를 생각해서'가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23.5%), '당시 분위기를 어색하게 할까봐'(22.8%) 순으로 나타났다.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방법 및 대응하지 않은 이유



“사전예방과 사후대처,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1.5%로, 대부분이 실시했다고 응답하였지만,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도 6.9%였다. 직장 내 성희롱 ‘사전 예방’을 위해서 ‘관리자급 인식과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45.8%)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사후대처’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피해자 보호 및 비밀보장 강화’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 ‘사전예방’을 위한 개선방안(1순위) (단위: %)

관리자급 인식과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	45.8
예방교육 방법과 내용의 다양화	20.2
관련 지침 중 주요 항목 의무화	11.4
전문적인 성희롱 상담센터 설치 의무화	9.8
정기적인 성희롱 실태조사	7.8
예방교육 횟수의 증가	3.0
기타	2.0

직장 내 성희롱 ‘사후대처’를 위한 개선방안(1순위) (단위: %)

피해자 보호 및 비밀보장 강화	35.8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15.4
사건 처리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전문교육의 강화)	15.0
사건 대응 매뉴얼의 구체화	10.6
2차 가해 방지 대책 강화(2차 가해: 사건 유포, 피해자에게 불이익 등)	9.7
전문적인 성희롱 신고센터 설치 의무화	4.7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전반에 외부 전문가 참여	4.7
성희롱 은폐규제 강화	1.9
성희롱 신고센터에 보다 강력한 권한 부여	1.8
기타	0.3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자유의견 분류 결과

사전 예방	조직문화 개선	394
	성인지 감수성 제고	261
	회식문화 개선	133
교육	내용의 질적 향상	76
	교육의 필요성 강조	76
	관리자급 중점교육	32
	성별·연령별 대상 세분화	7
	체계구축	84
사후 대처	전문 신고·상담기관 마련	42
	성희롱 판단기준의 구체화	33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4
	정기적인 성희롱 실태조사	4
	주요 보직에 여성 비율 확대	1
	사후대처	197
기타	남(가해), 여(피해)라는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	184
	설문조사 방식의 개선 요구	
	조직경직성에 대한 문제 제기	
	피해자 유발론 (ex. 피해자의 복장,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	
	혐오성 발언 (ex. 펜스틀)	
확실한 거부 의사 표현 요구		

(단위: 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 중 949명이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출했다. 의견들을 비슷한 범주로 묶어 분류하고, 내용별로 재분류하여, 총 1050건으로 집계했고(중복응답 처리과정과 유사), 그 결과를 요약하면 위와 같다. [W](#)

‘반남성주의’?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글 · 정다은_중부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4학년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23살의 한 여성이 피살당한 사건을 기억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어떤 인맥관계도, 뚜렷한 살해 동기조차 없는 이른바 묻지마 살인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성혐오 범죄라는 주장과 단지 정신병 환자의 범행일 뿐이라는 주장, 두 가지 논쟁이 당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분명한 건,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여성들이 두려워했고 분노를 터뜨렸으며 여성혐오라는 다소 자극적인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아마도 그 때쯤 부터였던 걸로 기억한다. 나의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 여성의 권리, 성차별이라는 주제가 점점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을. 이 사건의 피해자인 여대생과 나 역시 비슷한 또래였고 이야기 속 화젯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사건 이후, 강남역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내용의 많은 포스트잇이 게시되었고, 그 중에는 여성의 분노를 대변하는 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항상 조심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조심하면 남성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나쁜년이 된다.’ 1,004개의 포스트잇의 글 중 하나이다.

사실, 이전에는 여성의 권리, 페미니즘, 양

○○

‘항상 조심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조심하면 남성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나쁜년이 된다.’ 1,004개의 포스트잇의 글 중 하나이다.

PP



성평등, 성차별 등과 같은 개념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 분노를 터뜨릴만한 나의 개인적인 경험도 딱히 없었을 뿐더러 나의 중요한 관심거리도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나의 또래 친구들 모두가 나와 같은 것은 아니었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남아선호사상 또는 가부장제 문화를 지닌 집안 친구들의 불만과 차별사례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오히려 그러한 주변 사례들에 비추어 보아 나는 적어도 나의 ‘구성원 안’에서는 성차별은 없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재 사회에 발을 디딘 초년생으로서 대한민국 사회가 여전히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성, 그리고 한국 여성의 위치, 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미 내 주변 친구들 중 페미니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관련된 책을 읽고 공부하며 열변을 토하는 친구들도 꽤 있다. 이전에는 보기 드물었던 모습들이다. 아마도 위의 강남역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례들로 인해 점차적으로 확산된 하나의 여성문화인 것 같기도 하다.

문제점은 이러한 페미니즘이 간혹 누군가에겐 남성을 배제한 여성‘만을 위한 문화로 비추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단어 자체에서

부터 여성을 상징하며 이론의 주체를 여성으로 한정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반남성주의라는 선입견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다. 페미니즘이 남성과 여성을 편 가르며 대립구조를 야기하는 이데올로기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변에서 자신은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며 페미니즘을 남성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결국 페미니즘도 양성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운동으로서 남성과 대립하는 것이 아닌, 성차별주의적 사고를 여전히 지니고 있는 사회구조와 맞서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페미니즘을 행하는 주체가 여성만이 아닌, 남성 또한 될 수 있다는 사실과 ‘남자 페미니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식 또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페미니즘을 ‘남성에 대한 분노를 내포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되짚어볼 때이다.

성별을 막론하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페미니즘이 ‘모두를 위한’ 가치를 대변할 때 더욱 건강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W](#)

미투운동이 주는 작은 울림



글 · 송서진_대전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 1학년

근래 성추행, 성폭행 관련 뉴스들이 언론의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소리 내지 못하고 숨죽여 지내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삶이 노출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둘 미투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던 피해자들은 미투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잠재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듯하다. 그런데 조금씩 분량을 늘려가던 성관련 범죄 기사는 점점 자극적으로 변했고, 미성년인 우리가 접하기에 불편한 장면들과 기사들이 대거 등장했다. 때때로 선정적인 일러스트와 사진들은 미투운동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고등학생인 내가 실질적으로 공감하기에는 쉽지 않았었기에, 나와는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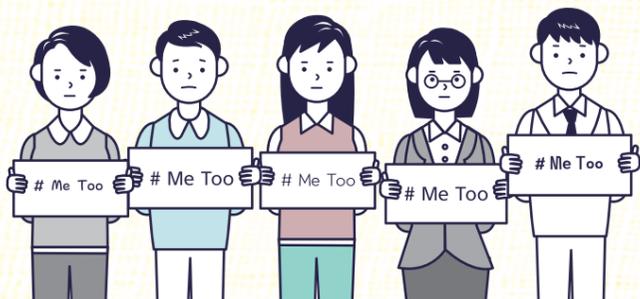
사람들의 이야기인 듯 불편하게 한편으로는 무관심하게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남녀공동징벌제'에 대한 찬반양론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관련된 자료조사를 하면서 시간에 따른 양성평등의 흐름, 여성의 선거권 획득 등을 살펴보게 되었고, 군복무시 공무원 가산점 제도의 폐지와 같은 사안도 검토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나는 내 선택과는 무관하게 남녀가 평등하지 못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성이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물론 노력을 통해 양성평등에 가까워지고 있으나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고, 미투운동과 연관된 사건으로 바라본 우리 사회의 현실은 절망적이기까지 했다. 한때 내가 외면했던 미투운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고,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일들을 해결해 나갈 중요한 계기임을 알게 되었다.

미투운동은 지금까지 우리가 여성이란 이름으로 참아온 불합리함을 드러내어 사회를 바꾸는 것이다. 어쩌면 이 불편한 현실을 알림으로써, 그러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기시키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세계 인권 선언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안타까운 사회에 살고 있다. 이 가운데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미투운동이 사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것이다.



나는 기대한다. 양성평등이 더 이상 토론의 주제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말이다



그럼 우리는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에 어떻게 반응해야할까? 나는 먼저 가정에서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여성과 남성이 똑같은 권리를 가진 존재라고 배워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킬 때 서로를 배려하고, 사회적 역할에 구분 짓지 않는 양육을 해야 한다. 어린아이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방심리가 큰 편이고,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사회적 통념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가정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직도 소방관은 남자여야 하고 음악교사는 여자여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자답지 못하거나 여자답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나는 세 남매의 맏이로 자라면서 최소한 우리 가정에서 나다움을 인정하는 평가와 대우를 받고 자란 것 같아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양성평등교육이 체계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나 선택이 성별로 차별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의 교과목으로서 채택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또한 나이가 국가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불평등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인식이 변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평등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정책도 필요하다.

오늘도 끝이 없어 보이는 수행평가와 대회, 시험공부로 매일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보면 언젠가 멋진 미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졸음을 참고 공부에 몰두한다. 나와 내 친구들이 기대하는 미래는 성별로 인하여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는 공평한 사회, 능력으로 공정하게 평가받는 사회이다. 나는 기대한다. 양성평등이 더 이상 토론의 주제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말이다. 

할머니의 당부



글 · 이윤정_대전만년고등학교 2학년

나는 성격이 활발하다 못해 시끄러운 정도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핀잔을 많이 들어야 했다. 할머니는 항상 "여자는 얌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면 "저래서 시집이나 갈 수 있겠느냐"며 혀를 차시곤 했다. 할머니가 나에게 바랐던 '얌전한 태도'는 집안일을 돕거나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나는 개성이 뚜렷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였다. 명절 때마다 행동이 조금 지나치다 싶으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내 이름 세 글자는 나를 주눅 들게 만들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혼나지 않았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

할머니도 사실은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중학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어느 날 밤, 할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할머니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너를 너무 많이 혼낸 거 같아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중학생이 돼서도 씩씩하게 생활하라"는 말씀도 덧붙였다. 그날 갑자기 할머니 왜 그런 사과와 당부를 하셨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들은 말 중에 가장 따뜻하고 용기가 되는 말이 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기 위해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양성평등과 페미니즘의 관점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어렸을 때 나에게 직접 상처를 주었던 집안에서의 성차별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과 취업에 관심이 커지자 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이 하나둘씩 눈에 보였다. 육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에 가서 군인이나 경찰이 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여럿 있다. 그런데 여학생 선발 비율이 남자보다 너무 적다고 걱정한다. 또 회사에서는 같은 조건이면 남자 직원을 선호하고 심지어 임금도 남자보다 여자가 적게 받는다는 말을 들곤 한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일부 은행이 아예 여자에게는 면접 점수를 적게 주는 방법으로 남자 직원이 더 많이 뽑히게 했다는 이야기를 접할 때는 정말 화가 났다.

양성평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여성의 권리 및 기회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 정치적 운동과 이론을 뜻하는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기 위해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양성평등과 페미니즘의 관점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남성 혐오나 여성 우월주의적인 방향으로 잘못 흐르는 경향을 보이기



도 한다. 이 때문에 남성들은 역차별에 분노했고 양성평등을 위한 운동이 성 대립의 양상으로 치달는 안타까운 일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잘못된 여성의 일방적인 권리 주장, 양성평등에 대한 오해가 불러온 일이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올바른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 또래의 학생 때부터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나가서도 올바른 생각을 하고 이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다고 본다. 그런 교육의 대상 역시 여학생, 남학생 구분이 없어야 한다.

천방지축이었던 내가 할머니에게 얼마나 불안하게 보였을까? 하지만 할머니는 당신의 경험을 통해 알고 계셨던 거다. 결국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도록 응원하는 것이 손녀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런 할머니의 응원과 당부가 헛되지 않도록 당당한 '여성'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할 생각이다.

한 사람의 시선이 변한다면 그 사람이 보는 세상도 바뀔 수 있다고 믿는다. 세상은 개개인의 힘이 모일 때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도 믿는다.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그 능력대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모든 '다맛! 누룽지' 수익금은 '카페 꿈 아시아'의 수익금과 함께 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정착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원봉사 | 통역, 의료, 법률, 프로그램 지원 등
후원물품 | 의류, 식품, 생필품 등
후원금 | 국민은행 474901-04-104753
이메일 | mws423@hanmail.net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 일터 '다맛! 누룽지'

누룽지 만들면서 자립의 꿈 키워요

지난해 11월 6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를 입고 이주여성쉼터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다맛! 누룽지' 제조 사업장이 개소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문을 연 세계다문화카페 '꿈 아시아'에 이은 두 번째 사업이다.

이주여성쉼터는 다문화가 공존하는 따뜻함이 있는 세상을 꿈꾸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하는 생활시설로서, 2008년 12월 19일부터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에서 대전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먼 타국에서 일가친척 없이 혼자 한국에 와서 여성폭력 등으로 인권침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에게 때로는 고향이 되어주고, 때로는 가족과 친구가 되어 주면서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보듬고 함께 울고 웃으며 행복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주여성쉼터는 누룽지 사업과 다문화 카페를 통해 이주여성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비공개 보호시설인 대전이주여성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지하에는 누룽지 공장이 있다. 1층은 사무실, 2층과 3층은 프로그램 운영 공간 및 입소자 생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4층 다락방은 아이들의 공부방과 쉼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쉼터 입소는 전국의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다누리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여성폭력피해 상담소 등의 연계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입소대상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등 여성폭력 이주여성 및 동반가족이며, 보호기간은 9개월로 필요시 최장 2년까지 연장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입소 정원은 15명이다.

다문화카페 '꿈 아시아'는 한남대학 정문 앞 캠퍼스타운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인턴십 지원 사업'으로 창업했다. 카페는 다문화 여성 바리스타 4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다맛! 누룽지' 제조 사업장에는 쌀을 도정하고 밥을 지어 누룽지를 제조할 수 있는 제반 설비가 갖춰져 있다.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에서 온 20대 초반~30대 중반의 이주여성 10여 명이 누룽지 제조에 참여하고 있다. 누룽지 제조는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이주여성들이 배우기 쉽고, 폭력피해 여성들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보호시설 내부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합한 품목이었다. 특히 이주여성들 대부분이 아시아 여성들로서 한국인 만큼이나 쌀에 대한 친숙한 문화를 갖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이주여성들은 사업장 개소 전 누룽지 공장을 견학해 기술을 배웠고, 다양한 맛(커피, 복분자, 울금, 아로니아, 카카오닙스, 깨, 현미, 보리 등)을 곁들인 제품을 연구했다. 이 과정에서 '다맛! 누룽지'란 상품명을 착안하게 되었다.

현재 '다맛! 누룽지'는 백미, 현미, 강황, 아로니아, 흑임자, 렌틸콩 등 6가지 누룽지 맛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집에서든 흔하게 맛볼 수 있는 누룽지라고 제조과정을 알았다간 오산이다. 국내산 쌀만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구수한 맛을 최대한 내기 위해 사업장에서 즉석 도정기로 쌀을 도정해 밥을 짓는다. 잘 지어진 밥은 누룽지 1개 분량만큼 초밥틀에서 토르르 원통형 주먹밥으로 굴러 나온다. 굴러 나온 주먹밥을 누룽지 기계에 넣고 돌리면 바삭하고 고소한 영양 만점의 '다맛! 누룽지'가 완성된다.

'다맛! 누룽지'는 대전시청 1층 행복매장, 유성구 사랑담은한식당, 카페 '꿈 아시아'(042-621-1117)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다맛! 누룽지' 사업장(042-484-3338)에 직접 연락해 구입할 수 있다. 5박스부터는 무료택배이며, 대전 시내는 직접 배달도 가능하다. 단체 행사 등을 위해 구매를 원하는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전화하면 대량 주문도 할 수 있다. 모든 '다맛! 누룽지' 수익금은 '카페 꿈 아시아'의 수익금과 함께 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정착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청인지역' 대전의 청년공간은 어디?

대전에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조성됐다. 이름하여 청년활동공간인 '청인지역'으로, 지역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특화 공간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된 3곳의 청인지역은 도시철도 대전역(청춘나들목), 둔산동 샤크존(청춘너나들이), 갈마동 충청투데이(청춘dododo)에 위치해 있다. 지난 4월, 도시철도 대전역의 '청춘나들목'이 가장 먼저 문을 열었고, 5월까지 2곳이 추가로 문을 열어 현재 모두 운영 중에 있다.



각 공간별 컨셉 및 디자인은 차별화 되어 있다. 도시철도 대전역사 내 '청춘나들목'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방문객과 여행자를 위한 정보 제공과 휴식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한 여행과 교통을 매개로 한 다양한 청년활동 네트워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성됐다. 지하 1·3층으로 구성되어 지하 3층은 개인 또는 소규모 인원을 위한 공유 부엌과 스타디존, 휴식존이 마련되어 있다. 지하 1층은 대전시를 방문하는 이들을 위한 안내와 홍보,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전시와 강연, 세미나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여러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이외에 청년구단, 청춘다락 등과 연계해 청년 창업가 및 활동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전 지역 문화예술인과 협업한 청년 사업, 청춘 프리마켓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청춘 나들목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8 대전역 지하 1층, 지하 3층
운영시간 | 평일 오전 08시 ~ 오후 8시 / 주말 오전 08시 ~ 오후 10시



둔산동 샤크존 2층에 마련된 '청춘너나들이'는 정보와 휴식, 청년문화 라이브러리 기능이 결합된 곳으로 330㎡ 크기의 공간을 퍼장, 보장, 먹장, 알장, 책장, 나누장 등 6개로 나눠 구성했다. 1,500여 권의 전문서적 등이 구비된 도서 공간과 청년 단체 및 활동가, 운영팀 등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회의 공간, 탁자와 소파 등이 갖춰져 있어서 개인업무도 보면서 휴식 및 힐링이 가능한 공간, 공유부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재무, 심리, 법률, 건강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을 위한 '청년인큐', 프리마켓 성장지원 프로그램인 '49살다 프리마켓', 새로운 경험과 취미생활을 배우는 원데이클래스 '오늘부터 1일', 청년 커뮤니티 기획행사인 '꿈와락', 청년 창업 컨설팅 'D 스타트업',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인 '청년 소셜 임팩트' 등이 운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춘 너나들이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9 샤크존 2층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9시 /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갈마동 충청투데이에 위치한 '청춘dododo(두두두)'는 페스티벌, 강연, 전시, 공연, 실내스포츠 등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으로 만나존, 정보존, 배우존, 협력존, 라이브존 등 5개 구역으로 나뉜다. 이 공간에서 청년들은 경험을 나누고 꿈을 공유하며, 청년 창업가들은 창작활동을 펼칠 수도 있다. 또한 휴식, 네트워킹 촉진을 위한 공연, 강연, 운동도 가능하다. 이외에 청년에 술가의 재료 및 전시 공간을 지원하는 '대전 전시 작전', 청년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두두두 영화제', 1인 가구 청년들의 커뮤니티 형성과 건강 증진을 위한 'dodotdot 운동회', 한 달에 한번 수요일 저녁 이용객과 운영자가 함께 요리하고, 나누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 '수요두식회', 지역 청년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청년 네트워킹 프로그램 '청춘 살롱' 등이 기획되어 있다.

청춘 dododo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30번길 67(충청투데이 1층, 지하 1층)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성평등 도시 대전

‘두런두런’ 이런 일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합동 캠페인



대전시는 지난 4월 18일 응봉정이거리 등 은행동 일원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대전 YWCA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가 주관했으며, 관련 시설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홍보물과 물품을 배부하고 최근 미투(Me Too)운동이 확산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이 근절되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앞으로 대전시는 캠페인과 더불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폭력예방 및 근절에 앞장 설 계획이다.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4대 폭력 예방교육

대전시는 3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3월 8일, 4월 6일, 4월 27일, 3차례에 걸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 4월 11일 공무원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미투운동’ 자정대회를 가졌다.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고위공직자, 여성·남성공직자 등으로 직급에 따라 구별해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폭력을 보는 다양한 시각차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했다.

제96회 어린이날 큰잔치



대전시는 지난 5월 5일 시민 6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6회 어린이날 큰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청 남문광장과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엄마, 아빠 함께 해요’를 주제로 대전시와 대전 서구청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식전행사외 기념식, 축하공연, 거리공연 및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복 나눔 거리 퍼레이드, 공군 의장대 및 군악대 공연, 어린이 치어리딩, 인형극, 태권도 줄넘기 등 다양각색의 공연들이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기념식에서는 행복 퍼포먼스로 ‘화합의 판넬’을 부착하며 어린이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120개의 부스에서 3D 아트 펜, 드론, 3대家 요리대회, 베틀시장 등이 열린 이번 행사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제16회 ‘대전여성상’ 선정

대전시는 ‘대전여성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추천서를 접수 받고, 심사를 거쳐 3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7월 4일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여성상은 대전 지역에서 거주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에 성과를 나타낸 여성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8년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막식



‘2018년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막식 PARAN’이 지난 4월 7일 대전광역시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주관으로 청소년 약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앞마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청소년 동아리 공연과 다양한 체험 및 캠페인 활동 등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참여의 장이 마련됐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연간 총 11회 각기 다른 주제와 테마로 진행되는 청소년 문화 마당으로, 이날 개막식은 2018년 첫발을 내딛는 어울림마당인 만큼 보다 다양한 공연, 봉사활동, 베틀시장 등이 펼쳐졌다. 또한 경품 추첨을 통해 참여자에게 풍성한 선물이 제공되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었다.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

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2018년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가 지난 4월 14일 한밭체육관에서 다문화가족 약 6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경기를 위해 마련된 4개 코트에서는 실새 없이 게임이 치러졌고 각 팀의 응원단들의 뜨거운 응원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다. 한편, 다문화가족들이 사랑·희망·용기 팀으로 나뉘어 코믹램보, 미션 홀라우프, 2인3각 등의 종목에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DAEJEON 기초자치단체 활동 엿보기

동 구 D O N G - G U

한부모가족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동구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월 11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10명에게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해 200백만원을 동구 대표 복지브랜드인 ‘천사의 손길 행복+운동’에 후원하는 기탁식을 가졌다. 후원금은 지난해 연말 바자회 수익금 전액이며, 매년 정기적으로 교복지원금으로 후원하고 있고, 이외에도 사랑의 밑반찬 나눔행사, 아동 성폭력 예방 캠페인,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키미 등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노인, 여성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지도자 소양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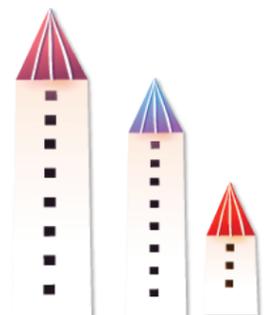


동구는 지난 2월 12일 9개 여성단체 회원 및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및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김동희 교수의 ‘사상체질로 소통하고 힐링하라’는 주제로 실시된 소양교육은 화를 다스리는 법과 여성리더가 갖추어야 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청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아동안전지도 제작



동구는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5월 10부터 30일까지 대암초·신흥초·대동초·현암초와 함께 2018년 아동안전지도 제작했다. 학생 및 학부모, 경찰, 상담소,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이 평소 통학하면서 느꼈던 학교 밖 500m 주변에 위험한 곳과 안전한 곳을 스스로 지도에 표시했으며, 발견된 10여 건의 위험환경들을 개선요청 했다. 구는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완성된 지도와 리플릿을 7월 중 학교에 배부해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중 구 J U N G - G U

산불예방 및 환경정화 활동



중구여성단체협의회는 등산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지난 4월 16일 보문산 산불예방 및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10개 단체 20여 명의 회원이 모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더불어 등산로 주변의 쓰레기 줍기 등의 활동을 하며 보문산을 찾는 등산객과 봄철 꽃구경을 나온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어린이날 아동·여성 권익증진 및 출산장려 캠페인



중구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아동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출산장려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을 통해 행사 참여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여성폭력, 성폭력, 성매매 근절 홍보 리플렛과 출산 장려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건전한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한 본 캠페인은 참여 가족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첫째아 출산장려금 30만원 지급



중구는 7월 1일부터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중구에 거주한 가정에서 첫째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한다. 저출산 극복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이번 정책은 대전시 자치구 중 출산장려금으로는 최고액이다. 방법은 출생신고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민센터 방문 또는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서 구 S E O - G U

제96회 어린이날 큰잔치



서구는 제96회 어린이날 큰잔치를 지난 5월 5일 대전시청남문광장과 보라매공원에서 개최했다. '엄마, 아빠 함께해요'를 주제로 카퍼레이드, 어린이난타공연, 태권도 줄넘기, 기념식, 무대·거리공연, 문화·과학체험버스, 가족요리대회 등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참석한 인원은 6만여 명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형 즐길거리를 통해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잔치로 자리매김 했다.

청소년 유해환경 캠페인



서구는 청소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과 청소년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월 1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주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실시한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청소년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유 성 구 Y U S E O N G - G U

공중화장실 디지털 범죄 예방 민·관·경 합동점검



유성구는 지난 4월 16일 유성구 여성친화주민참여단, 유성경찰서, 대전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과 함께 유림공원 및 유성온천족욕장 등의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디지털 탐지장비를 이용한 불법촬영기기(몰래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범죄 점검을 통해 성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실시했다. 유성구는 추후 디지털 탐지장비를 구입하고 지속적인 민·관·경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인지 정책 기획 및 여성친화도시 교육



유성구는 지난 5월 17일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성인지 정책 기획 및 여성친화도시 교육을 실시했다. 성인지 정책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찾아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순회 교육'으로, 여성친화도시 교육은 '여성친화도시로서 유성구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성인지 관점 형성과 인지력을 향상시키고, 유성구의 모든 정책과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양성 간 평등한 계획 수립 및 추진을 도모하도록 해 양성평등 구현에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대 덕 구 D A E D E O K - G U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캠페인



대덕구는 지난 4월 21일 참여자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캠페인을 가졌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위원, 4개 여성시설관계자 등 20명이 참여해 '행복YES, 폭력NO'라는 주제로 전개했다. 리플렛과 홍보물(일회용 밴드) 배부, 아동학과 가정폭력 예방 등에 대한 품보드 및 X-배너 전시, 폭력예방에 대한 인식개선 스티커 붙이기 등을 통해 생활속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도모했다.

제96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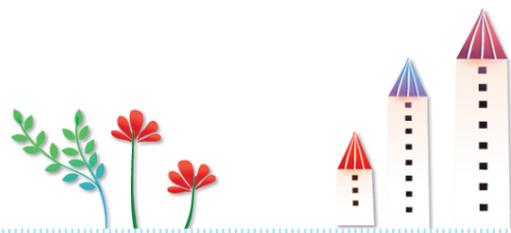


대덕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년을 기념하며, 지난 5월 5일 제96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모범어린이 표창과 태권도, 악기연주, 연극, 마술 등 어린이들이 직접 다채로운 재능을 선보여 3,000여 참여자인 어린이와 부모 등 모두가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또한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 '오늘은 내가 CEO'라는 주제로 베희시장도 열었다.

제1기 대덕여성리더십 아카데미



대덕구는 지역여성들의 대표성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제1기 대덕여성리더십 아카데미를 지난 4월 23일 개강했다. 모집된 22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관점과 여성친화도시, 여성 네트워크 기반 지역공동체 일자리, 도시재생사업과 주민의 삶, 대덕여성 문화, 여성과 주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 등을 주제로 7월 6일까지 총 5회로 구성했다. 4회 이상 참여한 주민에게는 보다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정 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



대전여성가족 정책센터 News

제1회 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포럼 “민선 7기, 꼭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지난 5월 2일 반가운 봄비가 내리던 날, 대전NGO지원센터 대교육장이 아침부터 분주하다. 대전여성가족 정책센터는 ‘민선 7기에 꼭 해결해야 할 우리의 과제’ 주제로 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포럼의 첫 번째 문을 열었다. 박재욱 대전세종연구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번 포럼은 원탁토론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시민, 여성가족정책 관련 종사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가족부의 제2차 양성 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참고해 성 주류화, 노동, 여성대표성, 공동체, 돌봄, 복지, 인권·안전, 청년 등 8개 주제로 테이블을 나눠 문제 도출 및 의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제안된 의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주류화- 육아휴직 제도의 실질적 활용 모색, 포괄적인 분야의 성 주류화 교육 마련, ▲노동- 스토리텔링을 통한 생애주기별 일자리 매칭, 4차산업 관련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료수집, 연구, 교육 실시, ▲여성대표성- 실질적인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 보장 및 핵심부서에서의 여성 리더 확대, 성평등 정책 감시를 위한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공동체- 다양한 계층으로 마을활동가 구성, 마을활동가 대상 세미나 및 교육 참여의 기회 확대, ▲돌봄- 돌봄사업 시행부처 연계 및 정책 일원화,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복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재정 투입 필요, 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 지원 확대, ▲인권·안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 교육의 다양화 필요,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인프라 개선 및 자립 지원금 확대, ▲청년- 대전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 필요,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제도 구축 등이다.



지정 토론 말 말 말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면서, 대전시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장래숙_대전시의회 입법정책실 주무관

“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앞장서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성일_중도일보 편집국 부국장

“성평등정책기획관을 신설하고, 여성가족원이 구심점이 되어 동네마다 마더센터 설립되어야”

임원정규_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청소년 대상 성인지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정책방향 설정에 관심을 모아야”

최해경_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포럼 공동대표·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같은 고민을 하는 여성들이 모여서 교류,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을 하는 것이 중요해”

이영세_대전세종여성가족정책포럼 공동대표·세종시 양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TEA & TALK “지금, 여기, 우리 이슈Issue”

지난 3월 8일, 진한 커피향으로 가득찬 대전세종연구원 1층은 색색의 종이에 펜을 놀리는 분주한 손길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와 대전·세종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지금, 여기, 우리 이슈Issue”라는 주제로 Tea&Talk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 참여한 지역 젠더 전문가 및 기관 종사자들은 일, 돌봄, 복지, 건강, 인권 등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직접 MeToo 이슈 페이퍼를 작성하고, 게시함으로써 메시지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회 젠더 콜로키움 사례로 보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젠더연구

여성·가족분야의 새로운 이슈와 담론을 파악하기 위한 젠더 콜로키움이 지난 4월 26일 2018년 첫 번째 문을 열었다. 이번 콜로키움에는 '사례로 보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젠더연구'라는 주제로 강정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강 교수는 미국 종합사회조사와 사망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생애과정과 사망률의 남녀 관계 차이,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의 게시물 분석을 통한 커뮤니티 내 정체성 분화 등 두 가지 사례에 주목했다. 참여자들은 '온라인·행정·서베이 데이터의 수집·결합을 통해 다양한 자료 생성과 보급이 가능해진 데이터 사이언스의 중요성을 비롯해 '인터넷 공간에서 부분익명과 완전익명으로 나눠져 나타나는 익명성에 따른 문화양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강정환 교수



제2회 젠더 콜로키움 마을에 젠더를 입히다

지난 5월 21일에는 '마을에 젠더를 입히다- 여성, 남성이 함께 꾸꾸는 마을 공동체'라는 주제로 열린 제2회 콜로키움이 열렸다. 이번 콜로키움은 관저동 관저공동체연합 석연자 활동가, 정림동 수릿마을어울림 김화진 활동가, 월명동 새뜸한울 이채진 활동가의 발표에 이어 대전시 서구청 김혜정 여성친화도시 담당 주무관과 이상미 지역공동체 담당 주무관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활동가들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마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로 보여줬다. 이후 참여자들과 함께 공동체 활성화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공동체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원 제도의 통합 정비와 필요하며, 중간지원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W](#)

마루마을어린이도서관

리빙랩, 법동을 부탁해!

법동 마루마을어린이도서관은 푸른 하늘과 산등성이가 보이는 마루에 모여 마을의 삶을 함께 나누는 마을 사랑방이자 주민공동체의 중심이다. 2008년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편히 쉴 수 있는 책 놀이터를 꿈꾸며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이래, 지난 10년간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도서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독서와 쿼츠, 육아 등을 주제로 다양한 성인동아리를 운영해왔다. 2015년 대전시 공유네트워크사업을 통해 시작한 온·오프라인 육아용품 공유의 장 '맘룸'과 마을축제 '동네야 놀자' 역시 그 결실이다. 행복한 법동 만들기애 앞장서 온 마루도서관이 2017년에 이어 올해도 '리빙랩' 사업을 시도한다. 주민들과 직접 의제를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함께 더 행복하고 즐거운 '마을살이'를 꿈꾼다.

사업명 법동에서 모이자! 해보자
활동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주요활동 주민이 직접 마을의 의제를 발굴, 공유, 해결의 발판 마련



주민 주도 마을개선 프로젝트, 법동에서 실현



'좋은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주민들이 직접 마을 의제를 설정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마을리빙랩 (Living Lab)'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대전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통해 법동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사용자가 주도하는 혁신모델을 일컫는 리빙랩은 '살아있는 실험실',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을 뜻한다. 이미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산업, 건강, 환경,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해결형 혁신방식으로 마을리빙랩을 채택했다. 국내에서도 서울 북촌한옥마을 리빙랩,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시니어 리빙랩 등의 사례가 있다.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 온 마루도서관은 해마다 마을축제 '동네야 놀자'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 정신과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고민을 안고 있었다. 때마침 지난해 처음 시작한 '리빙랩 사업'은 법동에 활동 거점이 있는 공동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

리빙랩 통해 함께 손잡은 마을공동체

"주민 개개인 마다 '우리 동네는 이게 문제야', '이것 좀 바뀌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은 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잖아요. 개인은 힘들지만 주민들이 함께하면 원하는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은순 마루도서관장은 "리빙랩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과 함께 보다 나은 법동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싶었다."라고 말한다. 지난해 5월 법동 복지관에서 마을리빙랩 워크숍 및 기획단 구성을 위한 모임이 진행됐다. 일반인들에게 낯선 개념인 마을리빙랩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자 여러 단체들이 '좋은 사업'이라며 흔쾌히 손을 잡아주었다. 대덕포앗이협동조합, 민들레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법동종합사회복지관, 사회적경제대덕플랜, 지역품앗이한발레츠, 마루도서관 등 여섯 단체가 공동기획단이란 이름으로 뭉쳤다. 지난해 7월 진행된 선진지 탐방은 공동기획단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었다. 10년 전부터 주민토론 광장을 열어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실천해 온 인천가좌 2동의 '여럿이 함께 하는 동네야 놀자'의 활동 모습에 법동 리빙랩 공동기획단은 '우리 스스로가 무얼 하고 싶은지? 무얼 할 수 있을지? 계속 할 수 있을지?'를 묻고 확인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8월, 과정 워크숍인 '법동이야기'가 진행됐다.

개선하고 싶은 우리 마을 문제는 바로 ○○○

지난해 진행한 리빙랩 사업 1차년도의 가장 큰 수확은 사람을 얻은 것이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참여를 이끌어 내는 일, 리빙랩의 성공은 주민참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을조사를 위해 동네 곳곳에 마을조사원 모집 포스터를 붙였고, 법동에 애정이 많고 이웃을 좋아하는 열정 있는 주민 10명이 연락을 주었다. 이들이 발로 뛰며 법동에 대한 기본인식과 개선하고 싶은 내용을 묻는 설문조사를 3주간 실시한 결과 법동주민 3만5000명의 약 2%에 가까운 521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1일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우리 마을의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법동 양지초등학교 강당에 모였다. 열린 마을공개회의 '동네를 말하다!'에는 초등학교생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200여 명의 주민이 모여 '우리 동네에 살면서 불편한 점'을 주제로 생각을 나누고, 토론했다. 수렴된 의견들은 1차, 2차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투표 결과 법동의 현안으로 문화공간 과문화시설 부족, 주차공간 문제가 꼽혔다. 설문조사 결과인 주거환경, 여가문화, 보건복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며 마을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주민의 역량이 자라남을 느끼며 마을의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경험했다.

HISTORY

- 2008 마루마을어린이도서관 개관
- 2011 제1회 마을축제 개최
- 2014 벼룩시장,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위원 및 자원활동가 워크숍 진행
- 2015 대전시 공유네트워크공모사업 '맘룸'
- 2016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해보자' 사업
 - 제6회 마을축제 '동네야 놀자' 개최
 - 대전시 지역공동체활성화 표창
- 2017 대전형 공동체 활성화 '마을리빙랩 구축' 사업
 - 법동 마을단체들과 함께 하는 '마을리빙랩 공동기획단' 출범
 - 리빙랩 선진지 탐방, 설문조사, 과정워크숍
 -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평가 워크숍
 - 공유사업 '맘룸' 활성화, 대덕구 마을넷 참여



더 촘촘하고 단단한 마을살이를 위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지난해 시도한 리빙랩 사업을 통해 주민과 공동체가 연대한다면 마을에 변화를 꾀할 수 있음은 물론 주민자치력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올해는 더욱 많은 주민이 마을리빙랩 사업에 의견을 내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을 장을 열고자 한다. 또한 의견 중에서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 행정 및 전문가와 협력할 것,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것 등 의제를 분류, 선정할 예정이며,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실험하고자 한다. 마을 주민 모두가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 서로 돕고 나누며 마을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곳, 리빙랩 사업 실천을 통해 변화될 법동의 2018년이 더욱 기대된다. 📖



여성계 활동 이모 저모



●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 2018년 신년교례회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월 10일 2018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14개 소속단체의 활동소개와 덕담, 교류의 시간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택수 정무부시장과 정·재계 인사, 여성지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대전시 여성계를 이끌어갈 주체로서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 검찰 성추행 사건 철저한 조사·임종 처벌 촉구 기자회견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월 5일 대전시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관련해 검찰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국가 최고 법 집행기관인 검찰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수사 과정을 비롯한 업무 중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여성비하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갈등해소 하나 되는 대전 만들기’ 캠페인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3월 15일 중구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미투운동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투지원본부 대전지부 발대식을 가졌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본부로 둔 미투지원본부는 전국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미투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 총 5개 분야로 운영되며, 함께할 단체는 대전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심리학회, 한국공법학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이다.

● 대전여성단체연합

+ 2018 행동하는 대전여성 희망지기 신년인사회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모여 신년인사를 나누고 새해 활동을 다

짐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월 19일 ‘2018 행동하는 대전여성 희망지기 신년인사회’를 열어 활동 사례들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매년 1월 진행되는 지역여성들 간의 새해 첫 만남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여성들의 자발적 네트워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 3.8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 기념 공동행동선언문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 3월 8일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하는 3.8 세계여성의 날 11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대전민중의 힘,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민주노동대전지역본부, 민중당 대전광역시당,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등 29개 단체가 함께했다. 성희롱과 성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노동권, 생존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며, ‘성평등 민주주의’가 단순한 광장의 구호가 아닌 개인의 삶의 변화로 연결되길 바라는 선언의 시간을 가졌다.

● 대전YWCA

+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이전 및 개소식

지난 4월 11일부터 대전YWCA는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하게 되었으며, 5월 9일에는 대전YWCA 4층 강당에서 이전개소식이 개최됐다.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가출 및 미혼모 모자 가정, 이주여성 등 상담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365일 24시간 상담을 통해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피해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결혼이주여성 선거교육



대전YWCA가 중구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난 5월 23일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똑똑한 선거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선거교육을 통해 선거 개념과 투표절차 안내를 통해 선거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투표장에 와 있는 것처럼 모의투표를 진행해봄으로써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날 캠페인



대전YWCA는 지난 5월 25일 고용평등주간에 맞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날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대전역 서광장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남녀 임금격

차 OECD 1위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36.65%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동일임금의 날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단지 배포를 통한 홍보 및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 대전광역시새마을부녀회

+ 대전광역시새마을부녀회 정기총회

대전광역시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월 31일 시·구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 주요 임원 선임 등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국가정책사업인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추진, 회원배가운동 등 조직역량 강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 스마일 굿데이(Good day)대전 운동 캠페인



대전광역시새마을부녀회는 지난 4월 12일 새마을지도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바르게 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자원봉사연합회, 대전사랑시민협의회와 연합해 공동체 가치 함양을 위한 스마일 굿데이(Good day)캠페인을 전개했다. 향후 매월 1일을 칭찬의 날로 정하고 5개 자치구별로 자율적으로 가정, 직장에서 1일 1회 칭찬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제8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대전광역시새마을부녀회는 지난 4월 24일 새마을운동 제창 48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은 대전광역시새마을회장과 5개구 각급 새마

을단체 대표 등 8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식전공연과 새마을운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 기념사, 축사에 이어 새마을운동 비전제시 퍼포먼스와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새마을가족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시민이 함께 호응하고 참여하는 새마을운동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

+ 물가동향 조사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는 지난 1월 31일 설 성수품 40개에 대한 조사를, 3월 19일과 5월 15일에는 생필품 66개와 개인서비스 20개 품목에 대해 가격 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금년 설 성수품 조사에서는 설 차례상 준비에 전통 시장에서 장을 보면 200,708원, 대형유통매장 268,200원, 백화점 377,112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생필품조사 결과 전년 대비 무, 쌀, 배추 등이 50% 이상 올랐고, 계란이 50% 이상 내렸으며, 개인서비스에서는 17개 품목이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 노인대상 찾아가는 소비자 정보전시회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는 지난 4월 21일 식당산 등산로 입구에서 노인 대상으로 소비자 정보전시회를 개최했다. 노인, 청소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총 2회에 걸친 ‘찾아가는 맞춤형 눈높이 소비자 정보전시회’ 중 첫 번째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리를 확보하며,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함으로써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목표로 실시됐다. 피해 다발 품목에 대한 소비자 상담사례 및 피해 구제방법 등 포맷스 보드 패널 12점을 전시하고 현장에서 간단한 소비자 상담도 병행했다.

+ 청렴 교육 및 캠페인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는 지난 5월 24일 청렴 캠페인을 실시할 모니터 15명과 회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청렴한 세상’을 주제로 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후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함께해요, 청렴세상!’을 슬로건으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4차 산업혁명만은 여성에게 축복일까?

글 · 지나라_과학스토리콘텐츠 SC00P 팀장

IoT·로봇 등 첨단기술 확대 '가사노동 구원투수'로 등판
사회활동 확대 낙관 속 '여성 일자리' 감소 비관 전망도



#1. 워킹맘 A 씨는 최근 직장 상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집안일 때문에 힘들다고 하자 상사는 이렇게 말했다. “밥은 전기밥솥이, 빨래는 세탁기가, 청소는 로봇청소기가 다 하는데 뭐가 그리 힘들어. 남편도 많이 도와준다면.”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꼭 참았다. 전기 코드만 꽂으면 밥이 되냐, 세탁기로 돌리면 빨래가 알아서 옷장으로 들어가느냐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 게다가 그 상사도 여성이었다.

#2. 또 다른 직장여성 B 씨. 직장에 어린이집이 있어 근무환경 좋은 곳에 다닌다고 남들이 부러워한다. 하지만 힘들기는 마찬가지. 아침, 저녁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주고 데려오는 일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아침에 못 한 설거지를 하고, 저녁을 먹은 뒤 다시 설거지하고, 아이를 씻겨 재우면 밤 10시가 넘는다. 소파에 기대 쉬는데 마침 회식을 마친 남편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하는 말, “집이 엉망이네.” 리모컨 던지려다 말았다.

00

로봇이 가사노동을 대신해준다면
가사노동에서 해방된 시간을 자기 계발에 더 투자하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은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00

현실·가상 세계 잇는 초연결 시대

A 씨와 B 씨의 사례에서 보듯 여전히 가사노동 부담은 여성의 몫인 게 현실이다. 양성평등 인식이 확산되면서 남편도 가사노동을 많이 분담하고 첨단 가전제품이 늘고 있지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집안일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지배적이다. 과연 그런가? 동시에 여성의 일자리 문제도 뜨거운 이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여성 일자리부터 줄어들 것이라는 ‘회색빛’ 관측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정말 그럴까?

4차 산업혁명, 자세히 몰라도 막연하게 훨씬 간편해지는 세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실제 그렇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로봇 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과 기계, AI, 각종 서비스 등 현실과 가상 세계를 연결한 이른바 ‘초연결 시대’가 대표적인 특징이다.

일상에서도 실제 빅데이터, AI,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로봇, 헬스케어, 스마트

홈(공장) 등이 조금씩 확산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실감하고 있다. IoT와 첨단 센서의 발전으로 집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조명이 들어오고, TV와 냉난방이 자동으로 켜지고, 샤워기의 물 온도와 침대 높낮이까지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홈 시대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청소·빨래 로봇부터 요리 로봇까지

스마트 홈은 IoT를 기반으로 여러 형태의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주거형태이자 라이프 스타일이다. 모닝콜이 울리면 커피 머신이 커피를 내리고, 커튼이 저절로 치는 광고 속 장면, 주인이 외출한 사이 로봇청소기가 청소를 하고 세탁기가 빨래하는 모습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니다. 청소 로봇에 이어 요리 로봇, 심지어 빨래를 개고 심부름하는 로봇까지 등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각종 첨단 기술이 가사노동의 구원투수를 자처한다.

가사노동을 돕는 로봇의 시작은 로봇 청소기이다. ‘룸바’라고 불리는 청소 로봇이 처음으로 등장한 게 2002년이다. 최근 출시된

로봇 청소기는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오염 상태와 가구 위치 등을 계산해 최적화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율 주행, 원격제어, 스마트폰 연동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것은 기본이다.

가사노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요리다. 스스로 알아서 각종 요리를 만들어내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피자, 햄버거는 물론 초밥 등 100가지 이상의 레시피가 입력된 로봇 시제품도 등장했다. 지난 2015년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전자박람회에서는 로봇 셰프가 최고상을 받았다. 또 미국의 한 로봇회사는 2016년 빨래 개는 로봇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트레이에 옷을 걸쳐 놓으면 자동으로 옷을 개는 방식이다.

이런 기술과 로봇이 개발되고 수준이 높아지면, 가사노동은 지금보다 수월해지고 단순해질 게 분명하다. 남성도 가사노동에 많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자는 여성이 될 것이다. 로봇이 가사노동을 대신해준다면 가사노동에서 해방된 시간을 자기 계발에 더 투자하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은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4차 산업혁명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에도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 앞에서 직장여성 A 씨에게 “뭐가 그리 힘드냐”고 타박했던 직장 상사는 남몰래 이런 로봇을 쓰고 있었을지 모른다. 이 정도로 로봇이 상용화되고, 일상에서 정착할 수준이 되어야 가사노동 때문에 힘들다는 여성에게 편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로봇을 대량생산하는 무인 자동화 공장. 영화 「싸로게이트」의 한 장면.

♫

남성은 4개의 일자리를 잃는 동안 하나의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반면, 여성은 일자리 20개를 잃어버리는 동안 하나의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



“여성, 일자리 20개 잃고 하나 얻는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회색빛’ 전망을 들으면 여성이 먼저 움츠러드는 게 사실이다. 다보스포럼을 주관하는 세계경제포럼(WFF)은 ‘직업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총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자동화 등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군은 상대적으로 여성 진출이 많은 사무직과 행정직이라고 밝혔다. WFF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여성에게 일자리가 적게 주어진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남성은 4개의 일자리를 잃는 동안 하나의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반면, 여성은 일자리 20개를 잃어버리는 동안 하나의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앞선 산업혁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범위와 규모, 속도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산업 분야와 일상을 바꿔놓게 될 것이다. 그동안 ‘반드시’ 사람의 힘이 필요했던 일과 노동의 상당수는



1936년 개봉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대량생산 체제가 도입된 시대 점차 기계화 되는 인간의 미래를 다뤘다.

컴퓨터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다. 일자리 감소, 특히 여성의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앞으로 더 커질지도 모르겠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발전한 신기술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970년대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확산하자 컴퓨터에 의한 자동 제어가 사람의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경고가 수없이 울렸지만, 오히려 일자리의 총량은 늘어난 사례를 예로 들면서 말이다.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가사노동 부담이 줄게 된다면 분명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는 지금보다 훨씬 활발해질 것이다. 반면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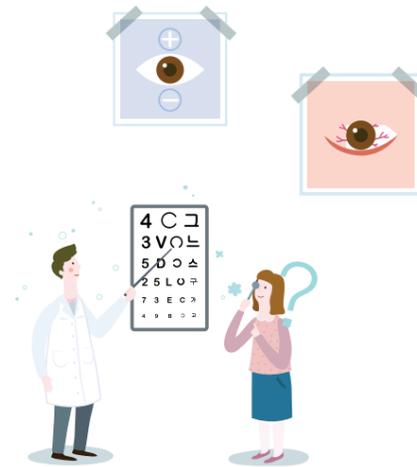
동화 기술과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면 여성의 사회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여성의 고민이기도 하다.

첨단 과학과 진보적 기술은 늘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동시에 품었다. 하지만 인류 역사는 그런 과학기술이 잠시 잘못된 길에 들어서고 엉뚱한 곳에 쓰일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삶에 기여해왔음을 보여준다. 4차 산업혁명 역시 ‘돌연변이’가 아니라 역사를 전진시켜 온 인류 역사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면, 낙관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W**

건강검진할 때 안과검진도 챙기세요



글 · 안승일_맑은눈안과원장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는 말에서 보듯 눈의 소중함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만, 막상 안과검진에 대해 어느 경우에 무슨 검사를 해야 할지 결정하기 쉽지 않다. 먼저 새생명이 탄생하면 기쁨으로 키우면서 ‘우리 아이의 시력은 괜찮은가?’하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된다.

아이가 아직 글씨를 읽을 수 없고 의사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시기에는 정확한 검사가 힘들지만 부모와 눈을 잘 맞추고 외견상 이상이 없다면 어느 정도 정상 상태로 볼 수 있다. 그 이후 성장하면서 숫자를 읽을 수 있고 의자에 앉아 몇 초 동안 잘 주시 할 수 있다면 기본적인 시력 및 굴절 검사를 할 수 있다. 소아에서 시력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약시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약 10~12세까지는 시신경의 발달에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때 망막 신경에 적절한 자극이 가지 않으면 안경을 착용해도 정상 시력을 가질 수 없는 약시의 가능성이 있다. 정상적인 시력 발달을 위해서는 검사와 필요하다면 안경의 조기 착용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시력이 나쁜 경우는 근시이며, 약간의 근시는 시력 발달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안경 없이 지켜보아도 되지

만 초등학교 입학할 때 0.5~0.6 이하의 시력일 경우 안경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원시나 난시의 경우는 약시의 위험요인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며, 시력과 도수 정도에 따라 학교 입학 전에도 안경의 조기 착용이 시력의 발달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

40대 이상이 되면 일반적인 다른 신체부위 검진과 마찬가지로 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시기이다.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가 시작되는 때이며 이에 따라 눈의 질환도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과를 방문해서 증상에 대한 치료 외의 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 기본적인 검사에는 세극등검사,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가 있다. 우선 일종의 현미경인 세극등 검사를 통해 대표적인 질환인 백내장을 비롯하여 눈 앞쪽 전안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시력검사

는 굴절검사와 병행하여 안경으로 교정했을 때 정상시력이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야 한다. 안압검사는 녹내장 검진을 위한 일차적인 검사이며 일반적으로 정상범위는 10~21 mmHg이다. 하지만 안압이 정상이라도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고, 안압이 높더라도 각막이 두꺼우면 보정 시 정상 안압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의심되는 정도에 따라 안저검사, 시야검사, 안구광학단층검사 등을 통해 질환유무나 질환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녹내장은 초기에는 증상을 못 느끼며, 증상을 느낄 때에는 이미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일 수 있으므로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본검사 외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은 혈관질환이므로 눈의 미세혈관에도 염증이나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런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망막에 대한 검사가 꼭 필요하다. 또한 눈앞에 날파리 등이 떠다닌다고 느끼는 비문증의 경우도 대부분은 양성이어서 특별히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가끔은 출혈이나 망막 손상이 원인이 되어 시력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망막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눈이 뿌옇게 혹은 휘어져 보이거나 가리는 증상이 있을 경우도 검사가 꼭 필요하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망막 질환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 치료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검진을 통해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 과거에 백내장이나 망막수술, 굴절교정수술을 받은 경우라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수술부위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안과영역에 여러 새로운 장비가 개발되어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많은 안과질환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어 늦게 발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초기에 검진을 통해 상태를 확인한다면 건강한 눈을 오래도록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W**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Work-Life Balance)과 일자리나누기로 이어질 수 있을까?



글 · 이은정_노무법인 정음 대표노무사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지나가고 조금 한숨 돌릴까 싶더니 쉴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커다란 이슈가 터졌다. 매년 모락모락 연기만 나던 근로시간단축 관련 개정법안이 2018년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계류를 반복했던 기간만 어언 5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었는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



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적용시기
근로시간 단축	1주 연장·휴일근무 합산하여 최대 12시간으로 제한 (1주 52시간 근로)	300인 이상 2018.7.1.부터 50~300인 미만 2020.1.1.부터 5~50인 미만 2021.7.1.부터
휴일근로 할증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은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	2018.3.20.부터
특별 연장근로 허용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는 경우 1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1주 총 60시간)	2021.7.1.~2022.12.31.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5개 특례업종은 연속휴식 11시간 부여 의무화	2018.7.1.부터 단, 특례제외대상업종은 2019.7.1.부터 연속휴식 의무화는 2018.9.1.부터
공휴일 유급화	관공서의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300인 이상 2020.1.1.부터 30~300인 미만 2021.1.1.부터 5~30인 미만 2022.1.1.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기준법 제52조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를 현행 3개월에서 1년 단위기간 등 확대 검토	검토기한 2022.12.31.
연소자 근로시간 축소	연소자의 근로시간 1주 40시간에서 1주 35시간, 연장근로를 1주 6시간에서 1주 5시간으로 단축	2018.7.1.부터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으로 제한

‘1주 52시간’을 개정법 첫머리에 못 박은 사연은 ‘휴일근로의 연장산업’이란 개념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 합의 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1주의 범위를 고용노동부가 ‘5일’로 보면서 법적으로 최대 가능한 총 근로시간을 1주 68시간으로 해석해온 데에서 논란이 싹트게 되었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아니 일반적으로 1주는 7일을 의미하지 않냐”며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지적했고,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50%만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중복 할증하여 100% 가산해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이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 주었고 논란이 커지게 되었다. 뜨거워지는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이번 개정법에서 1주는 7일로 해석함을 명확히 규정하게 된 것이다.

구분	1	2	3	4	5	6	7	정리
고용노동부	1주 40시간 연장 1주 12시간					휴일 8시간	휴일 8시간	총 68시간
개정법	1주 52시간							총 52시간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근로기준법은 ‘특별한 공익적 필요성 또는 현저한 업무상 특성’으로 인해 일정 업종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계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데, 1961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상 업종이 한 차례의 수정도 없이 그대로 유지됐다. 더욱이 전체 사업체의 약 55%가 특례업종대상으로 집계되면서 제도 취지와 달리 특례제도가 사용자의 영업을 위한 확보를 위해 활용되거나 장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문제점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특례제도의 원칙 및 범위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미뤄던 숙제를 급변 개정법이 해결하게 된 것이다.



기존: 26개 업종

육상운송 / 수상운송 / 항공 운송 / 그밖에 운송서비스업 / 자동차 부품 판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소매업 / 보관 및 창고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방송업 / 전기통신업 / 교육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 시장 조사 및 여론조사업 / 광고업 / 보건업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 숙박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미용, 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우편업 / 사회복지사업



개정: 5개 업종

육상운수업(노선버스 제외)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서비스업 / 보건업

공휴일의 유급화

흔히 ‘빨간날’이라고 하는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로, 일반 근로자도 당연히 적용되는 법정휴일이 아니다. 일반근로자의 법정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갖게 되는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딱 2가지뿐이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여 쉬고, 또 어떤 회사는 근로를 하고 모두 다르게 적용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정하여 모두, 다 같이 쉬도록 하는 대신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시행하도록 개정됐다.



워라밸과 일자리나누기를 위한 노력

현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과 ‘일자리나누기’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여기에 ‘최저임금의 인상’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근로시간=임금’이라는 공식과 ‘근로감독관 증원 및 노동관계법 준수 강화’ 카드를 연결시켜 회사가 자연스럽게 근로시간제도, 근태관리방안, 임금체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도록 만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과연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저출산 개선, 생산성 및 일자리 증대,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로 연결될 수 있을까. 정부만큼이나 그 결과가 궁금해진다.

'라임청'으로 무더위를 쿨하게 날려볼까?

봄에 막 접어드는 듯싶더니 벌써 덥다는 말이 자연스레 나오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태양빛이 뜨거워질수록 우리는 시원한 음료수를 찾게 되는데 시중에 파는 탄산음료는 당장의 더위를 잊게 할 뿐 금방 다시 갈증을 느끼고 다른 음료를 찾게 된다. 이럴 때 손쉽게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라임청을 권하고 싶다. 탄산수에 라임청을 타 마시면 특 쓰는 청량감에 상큼한 라임향이 더해져 더위와 갈증을 해소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다. 올 여름 무더위는 라임청으로 해결해보자!



글·사진·민정희_슈가시크릿케익아트학원장



재료(500g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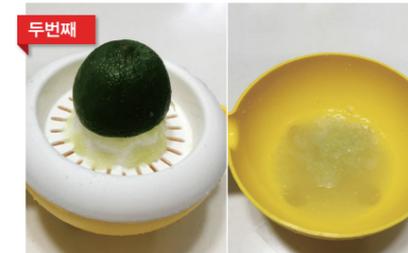
라임 500g, 설탕 550g, 사과즙 25ml, 라임즙 25ml, 로즈마리 10g

첫번째



→ 라임을 깨끗이 베이킹소다로 세척해 준비한 후 슬라이스로 잘라주고, 라임 무게의 110% 양의 설탕을 준비한다.

두번째



→ 라임즙은 스퀴저를 사용해 직접 짜서 활용하면 더 상큼한 라임청을 만들 수 있다.

세번째



→ 준비된 유리병에 설탕을 넣어준 후 그 위에 라임을 넣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층층이 쌓듯 설탕과 라임을 번갈아서 넣어준다.

네번째



→ 설탕과 라임을 적당히 넣어준 후 마무리로 로즈마리 잎을 넣고 다시 설탕을 넣어준다. 그리고 다 마무리되었으면 뚜껑을 닫고 실온에서 숙성시킨다.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맛있는 라임청이 완성되며, 숙성 후에는 냉장보관하면 된다.

완성



→ 숙성된 후 원하는 양만큼 물에 타 마시면 된다. 이때 물대신 탄산수를 활용하면 더 청량감 높은 라임청을 즐길 수 있다.



라임의 효능

라임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에 좋고, 나트륨 제거에 탁월해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비타민C와 구연산이 풍부해서 노화방지, 빈혈 예방, 소화촉진, 피부미용, 피로회복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대전 마을라디오 1호, 대덕밸리라디오 최순희 총괄PD “마을라디오로 삶의 공간을 가깝고 풍부하게 만들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마을라디오를 통해서 이웃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내 이야기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됐다. 마을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마을라디오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으며, 일상을 공유함으로써 재미가 더해진다. 대전에도 시민이 만드는 커뮤니티 미디어인 대덕밸리라디오가 있다. 동네방송인 대덕밸리라디오가 시민방송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최순희 총괄PD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다.

Q. 방송, 언론 등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해 오셨나요?

어린 시절 어머니는 라디오를 늘 가까이 두고 듣는 열혈 청취자이셨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라디오를 재미있게 들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국 어린이 방송극 경연대회'에 출연을 위해 KBS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었는데요. 당시 저를 봤던 연출가의 추천으로 '어린이 방송' 진행을 2년간 하면서 프로듀서의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86년 입사한 대전 MBC에서 '여성시대', '별이 빛나는 밤에', '정오의 희망곡' 등 여러 프로그램을 제작·진행하면서 라디오 연출시기를 보냈습니다.

이후 TV에서 휴먼다큐멘터리 연출, 지역 MBC 3사(대전, 청주, 충주MBC) 공동제작 CP 등을 지냈고, 현재는 배재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대전국악방송 '금강길 굽이굽이'라는 프로그램의 객원연출 및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또 오늘 소개하는 대덕밸리라디오의 총괄PD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Q. 대덕밸리라디오의 탄생 배경은 무엇이고, 다른 방송과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2014년 가을, 당시 처음 문을 연 시청자미디어재단 대전센터에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라디오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그 때 시민들이 방송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로서 함께하면 '마을미디어'를 만드는 동력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죠. 이왕이면 과학도시인 대덕을 담은 시민공동체 미디어를 만들면 대덕연구단지지를 포함한 대전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디어 학습 공동체가 시민 미디어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발전한 겁니다.

Q. 공간이나 활동비는 어떻게 마련하나요?

현재 대덕밸리라디오는 대덕연구단지 사거리 에 위치한 TBC건물 이노스타트업 공유공간에서 방송합니다. 운영비용도 특별하게 외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마을축제나 행사 중계를 의뢰할 때, 주관하는 곳에서 비용을 준비하면 활동가들의 점심식사 정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전세종여성벤처연합회와 송년방송을 한 이후 김영휴 회장이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출연자도 자원봉사 개념으로 시간을 내어 주기 때문에 출연자까지도 마을미디어 제작단의 일원으로 참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순희 총괄PD

현) 대덕밸리라디오 총괄PD/배재대학교 조교수
전) 대전MBC Radid/TV PD, 편성제작부장

2015 ~ 현재 대전충청민주인문시민연합 운영위원장

2015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
토론위원

2016 ~ 현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상임이사

2017 ~ 현재 대전국악방송 객원연출 및 진행



Q.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기획의도, 특이점 등을 말씀해주세요.

과학도시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 도시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삶의 공간을 가깝고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미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동체로 인식하도록 기존의 방송과는 다른 패러다임이 있어야 했죠.

현재 매주 수요일 낮 12시에 방송하는 '우리가 주인공'은 보이는 라디오로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방송하고, 유튜브를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곧바로 업로드 합니다. 또 하이라이트 영상은 1분 30초 정도 편집해서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 같은 SNS를 통해 전달합니다. 앱을 사용해서 촬영하는데 기존의 방송 화면처럼 화면구성도 다양합니다. 마을공동체를 담은 작은 미디어로 오래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보편화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서 만들고 스마트폰에서 콘텐츠가 쉽게 돌아다니도록 했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지역주민들의 반응이나 참여도 등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중력과 발견 연구단으로 참여했던 과학자로 중력파에 대해 설명해 주었던 출연자가 기억에 남는데요. 이듬 해 노벨상 수상과 관련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덕밸리가 아니면 듣기 어려운 소식들이기도 하지요. 또 출연했던 분들의 근황이 저희 SNS페이지와 연동되

면서 전해지기도 합니다. 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며 일상을 공유합니다. 현재까지 출연자는 평범한 이웃에서 과학자나 예술가, 시민활동가 등 300여 명이 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그룹에 있는 분들은 4월 말 현재 667명이고, 이 분들 중에 SNS그룹으로 소소한 안부를 주고받는 분들은 100여 명이 됩니다. 인터넷 미디어로서 이 분들이 잠재적인 유통채널이 되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 저희 작은 마을미디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들이 3년 동안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Q. 새롭게 준비하거나 계획한 활동이 있나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 스태프의 이동도 생깁니다. 가족의 근무지 이동으로 실리콘밸리에 가 있는 스태프는 그 곳 소식을 방송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기획을 하기도 합니다. 서울에 가있는 스태프는 급하면 내려와서 1일 MC도 맡아 주기도 하고요.

이처럼 주어진 여건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대덕밸리 주변과 먼 이웃과의 연결도 시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스태프 10여 명은 연령층이 20대 초반에서 60대까지 다양합니다. 어느 세대나 접근이 가능하다는 방증입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워크숍을 기획해서 하는 일을 공개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기회를 제

공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개방하고 공유되는 미디어로 지속 발전함으로써 오래 활동하는 것이 목표이며, 스태프가 시민의 자발성에 의해 유지되는 방식을 늘 고민합니다.

Q. 마을미디어가 더욱 성장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존의 방송은 광고와 밀접하게 연관 되고 수익을 내야 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기존 방송에서 다루는 '지역'은 물건을 전시하는 쇼윈도우와 같아서 지역과 지역사람을 다루는 시간이 한정되고 내용도 제한됩니다. 이에 반해 마을미디어는 만드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덕밸리라디오가 현재의 공유공간으로 이전한 것은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입니다. 마을미디어가 어떤 기관 안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기관의 경영평가나 관리자의 성향에 의해 출연자와 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초기 1년간 경험했습니다. 기관 운영자의 이해관계와 지역 미디어 활동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 기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은 보다 공공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미디어가 공동체 안에서 선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민들 또한 내 삶과 미디어를 어떻게 연결시킬까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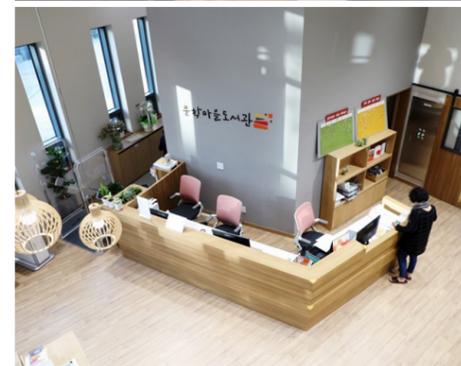
도서관 어디까지 가봤니?

유림공원 숲 속 '문학마을도서관'

대전시민이라면 한번쯤 나들이 장소로 가봤다는 유림공원. 공원 내에는 빼곡한 아파트를 배경 삼아 우아한 자태의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 바로 '문학마을도서관'이다. 지난해 10월에 개관한 문학마을도서관은 유성구에서 추진해 온 아홉 번째 작은도서관이자, 유성구 어린이영어마을도서관, 별뿔별과학도서관에 이어 문학을 테마로 한 세 번째 특화도서관이기도 하다.

도심 한복판에 자연을 벗 삼은 문학마을도서관은 가는 길부터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풀내음으로 가득하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보면 자연스럽게 도서관으로 들어설 수 있어 친근하게 다가온다.

외관부터 남다른 문학마을도서관은 마치 카페를 연상시키는 인테리어가 눈에 띈다. 지상 2층, 연면적 263㎡(80평)의 규모로 따사로운 햇살이 들어오는 2층 창가에서는 유림공원과 강변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서는 멋진 풍경 감상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다. 숲 속 맑은 공기와 함께 책도 보는 '힐링' 공간인 문학마을도서관은 입구부터 남다르다. 도서관에 들어서서 보이는 바구니 안에는 도서관을 찾는 이들을 위해 시가 적힌 종이와 쌓여있다. 주민들은 시를 뽑으면서 '문학'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준비를 한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로 22(유림공원 내)
전화 | 070-4192-1677
인터넷 커뮤니티 | cafe.naver.com/literaturelibrary

00

문학마을도서관은 특별한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주민의 힘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 도서관'이라는 것이다

00

현재 보유장서가 약 7,000권에 이르며, 분야별로 가지런히 정리돼있다. 문학도서관이라는 특색에 맞춰 국내의 문학도서가 전체 도서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문학전집을 읽을 수 있는 문학방이 마련되어 있다. 그 외에 어린이 도서 20%, 기타 도서 10%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학도서의 비율은 앞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한다. 도서 구입은 도서관 이용자와 봉사자의 의견을 받아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이외에 기타 외부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도서를 기증받기도 한다.

마을의 작은 공유공간답게 색다른 점이 많다. 기본적인 독서교육 외에도 주민들이 독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문학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작가와 함께 떠나는 문학여행으로 희곡 읽기, 소설 창작, 문학작품 토의 등이 진행되고 있고 각종 특강이 상시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작가의 특강은 주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강을 통해 '문학'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고, 책을 다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평균 주1회 간격으로 마련되며, 강좌 모집공고 가나면 2~3일 내로 마감될 정도로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다. 문학마을도서관 프로그램 모집공고는 도서관 실내외에 있는 게시판과 안내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봉사자의 안내를 받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문학마을도서관은 특별한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주민의 힘으로 운영하는 주민자치 도서관'이라는 것이다. 자발적이고 역량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민주도형 도서관으로, 자원봉사자들의 대부분은 도서관 봉사경험이 있거나 대학에서 문헌정보를 전공한 사람들이다. 박순규 관장을 포함해 자원봉사자는 총 35명이다.

회원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도서를 1인당 2권씩 7일간 대출(1회 1주일 대출기간 연장 가능)받을 수 있다. 대전시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대전시 소재 기업 직장인 및 학교 재학생들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도서관을 방문해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 회원증을 발급해준다. 성인은 신분증, 중·고등 학생은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영유아나 초등학교생의 경우에는 보호자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지참하면 회원증을 만들 수 있다.

문학마을도서관의 이용시간 연장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이 많아지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올해 2018년 1월부터는 일요일에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마을을 사랑하는 작지만 큰 '작은도서관'

요즘에는 큰 도서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동네 곳곳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해 독서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주변을 잘 살펴보면 작지만 알차게 운영되는 마을도서관, 작은도서관들이 꽤 많다. 단순히 필요한 책을 빌려주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도서관 본연의 역할 외에 최근에는 소규모 모임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동네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자 쉼터이며, 아이들이 하교 후 들리는 놀이터라고도 할 수 있다. 도시생활에서 희박해진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대전의 특색을 살린 작은도서관을 찾아보았다.

글 · 조강숙_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시민공감기자단



▼ 희망마을 작은도서관



희망마을 작은도서관(유성구 봉명동)

희망마을 작은도서관은 유성구의 명소로 꼽힐 정도로 유명하다. 2013년 5월 15일 개관해 5주년을 맞았다. 3층짜리 건물 1층에는 경로당이, 2층과 3층은 도서관이다. '작은'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꽤 규모가 크다. 입구에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아기자기, 알록달록 다양하게 꾸며져 있다. 1만 4천권의 장서와 어린이, 성인 열람실이 따로 마련돼 있다. 책장도 이용자의 연령층에 맞게 높낮이가 맞춰져 있다. 대부분의 마을도서관은 100% 후원과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희망마을 작은도서관은 건물과 운영비를 유성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은 100% 자원봉사에 의존한다. 김경언 관장을 비롯해 10명의 자원봉사자가 대출업무와 프로그램 운영, 청소까지 맡아 하고 있다.

희망마을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명하다. 대전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3년째 진행하고 있고, 지역특성화 예술교육지원 사업으로 '연희야 놀자, 우리 동네 연희 놀이터'가 진행 중이다.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만든 인형극단 '우리마을 부엉이 연희단'은 작년 추천인형극제에 참가하기도 했다. 희망마을 도서관 책, 한밤의 부엉이 독서캠프, 부엉이 오형제 등 독서와 마을과 이사가 합쳐진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다. 어린이들이 책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과 친해지도록 만드는 공간이다.

운영시간 화요일~토요일, 10:00~17:00 (국경일, 공휴일 휴관)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680번길 126 (봉명동 463-35)
이용문의 070-8861-7279



꾸러기 어린이도서관(대덕구 비래동)

'작지만 큰'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도서관이다. 2008년 5월 인근 다른 곳에서 개관했으나 2013년부터 대덕구 비래동 현재의 한적한 주택가 건물 2층에 자리 잡았다. 넓다고 할 수 없는 공간에 1만권이 넘는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마을도서관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공간 확보와 운영비 마련이다. 꾸러기도서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 주민들의 후원으로 개관을 했으며, 이후에는 도서관 운영위원들이 일정금액을 모아 대여하는 형태로 현재의 공간을 전세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운영은 강승희 관장을 비롯한 13명의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다. 주로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주부층이다.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 프로그램과 킷교실을 운영하며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대상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12:30~17:30 (목요일은 21:30까지, 국경일, 공휴일 휴관)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로 39번 길 9, 2층
이용문의 042-320-0040





대전문화아동센터도서관

대전 유일의 다문화도서관으로 특색이 있는 도서관이다. 올해 5월 13일로 개관 8주년을 맞았다. (사)러브아시아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아동센터와 함께 있다. 다문화도서관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대부분 어머니가 결혼이주 여성으로,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기 때문에 6천여 권의 소장도서는 일반 도서관과 다를 게 없다. 4세~11세 아동을 대상으로 독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가 가정에서 문화나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점을 감안해 단순 독후토론에 그치지 않는다. 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놀아주기도 하면서, 학교나 가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자연스럽게 일대일 상담이 이루어진다.

지난 3월에는 삼성도서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꿈자람 도서관'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다. 어린이도서관이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도서관과 복지관에서 한국어 교육도 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와 어린이들이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복지관과 함께 도서관도 지자체 등의 지원 없이 후원으로만 운영이 된다.

운영시간 평일 10:00~17:00 일요일 14:00~17:00 (월요일, 토요일 휴무)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 467-1, 2층
이용문의 042-222-6242

반디의숲 도서관

오랫동안 자연,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보호, 감시, 교육, 연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대전충남생태보전시민모임'에서 2017년 4월에 개관한 생태전문 도서관이다. 개관을 앞두고 단체 회원들과 지역주민들이 두 달 만에 1,800여 권의 도서를 모아서 기증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대전충남생태보전 시민모임에서 19년간 지속해 온 자연생태보호 활동과 도서관이 연계해 그림책 원화 전시회, 환경 관련영화상영, 환경분야 작가와의 대화 같은 행사를 열었다. 특히 방학에는 유아, 어린이, 중·고등학생, 성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보드게임, 가베, 자연공방, 바리스타, 영어그림책 구연, 책읽어주기 봉사, 환경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와 생태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인근 만년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만년동 문화·역사 탐방-만년동 지역 생물 다양성 탐구 활동'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유아를 대상으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 유치원 등에서 방문을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한다. 어려운 점은 운영비가 여의치 않아 신간의 보유가 어렵다는 것. 하지만 일정기간 증여를 하는 형태의 공유서가를 통해 도서부족을 조금은 해소하고 있다. [W](#)

운영시간 10:00~17:00(월요일, 법정공휴일 휴관)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남로 9(만년동), 만년코아빌딩 지하 1층
이용문의 042-478-6062

저의 성은 '여'가 아닙니다!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 국제디자인교류재단 INTERNATIONAL DESIGN EXCHANGE FOUNDATION ipd

2017 양성평등 디자인 공모전 청소년부 금상
 저의 성은 '여'가 아닙니다_김진옥
 직업에 '여'자를 붙여서 말하는 것이 성별로 인해 구분을 짓는 것임을 보여주는 작품. 여교수, 여검사, 여배우, 여경, 여기자 등의 단어들 모아 여성으로 형상화하여 표현